

연구원 소식

2차 전·남북 독서리더 교육 진행

(사)인문지행과 우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독서 콘서트가 11월 5일 16시부터 18시까지 열렸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회원 이십여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이번 강좌는 우리 연구원 운영위원이기도 한 이정욱(전주대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가 <일본영화와 한국·한국인>을 주제로 한 발표 후 군산대 황태묵 교수와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정욱 교수는 발표를 통해 193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재일한국·조선인의 영화를 시기별·세대별로 비교하여 일본 영화에 나타난 한국·한국인의 표상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미디어나 문학 작품에 집중되었던 연구의 범위를 영화로 확대함으로써 일본사회 내 재일한국·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전체상을 중층적으로 조망하는 등 큰 의미와 울림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후 곧이어 열린 토론과 질의 응답에서는 황태묵 교수님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독서리더 교육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양정오님과 박종관님 두 분의 음악인을 모시고 플룻과 첼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1차 강좌에 이어 다시금 아름다운 선율이 강의실을 수놓으며 강좌의 대미를 장식해주었습니다.

2차 독서 리더 교육 이모 저모



2022년 4차 운영위원회

2022년 4차 운영위원회의가 11월 5일 14시 30분 연구원 사무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53차 문화강좌와 2022년 송년회 및 2023년 신년 기념품에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53차 문화강좌와 2022년 송년회는 12월 10일(토)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부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이 현장 인터뷰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을기록화사업 보고서에 삽입될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자료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드립니다.

밀양 사람 김원봉 - 1919. 11. 9

1919년 11월 9일 만주 길림성의 한 중국인 집에는 상기된 얼굴의 조선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날, 날카로운 눈매에 잘생긴 얼굴의 한 청년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다. 경상도 사투리 짙게 배어나오는 그의 언어는 정연하면서 매서웠다. 스물 세 살의 개띠 청년. 그러나 어느 범보다도 무섭고 어떤 용보다도 날래게 식민지 조선을 뒤흔들 사람이었다. 그 이름은 김원봉. 그렇다 얼마 전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가 특유의 목소리로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오"라고 하며 등장했던 그의 주도 하에 '의열단'이 결성되었다.

의열단은 결성 당시부터 그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평화적인 만세 운동이 어떻게 짓밟히는가를 똑똑히 본 이상 평화로운 수단으로 뭘 어찌 보겠다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했으며, 실력 양성하여 후일을 기약하고 어찌고 따위는 그들에게 비겁자의 변명으로 들렸다. 그들은 폭력 투쟁을 내세웠다. 일제의 요인과 빌붙는 친일파 암살과 주요 기관 공격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용기를 일깨우고 그 힘을 끌어내겠다는, 80년대 학생운동 식으로 말하면 '선도투쟁'을 감행하고자 했다. 규모는 작아도 철저하게 훈련된 소수 역량을 통해 일제의 식민 통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의열단은 이를 위해 아예 '5파괴 7가살'이라는 행동목표를 채택했다. 5개의 파괴대상으로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사, 그리고 식민통치의 축수인 각 경찰서와 주요 기관을 들였다. 그리고 죽여도 되는 '7가살'의 대상으로 조선총독 이하 일본 고관, 군부 수뇌,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적의 밀정, 반민족적 토호 등을 명시했다. 이 의열단의 정신을 신채호가 명문으로 표현한 것이 유명한 "조선 혁명 선언이다."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당시의 기념사진. 앞줄 왼쪽 셋째가 김원봉.

“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營(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암살·파괴·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이후 1920년대 초반 의열단의 이름은 조선을 뒤흔들었다. 1920년 박재혁이 부산경찰서를 공격하여 서장을 폭사시킨 것을 필두로 의열단원들은 일본 경찰의 공포 대상이자 최고의 목표물이 됐다.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터뜨린 나석주, 종로경찰서를 부수고 1대 20의 총싸움에서 그 대부분을 쏘아 넘어뜨린 명사수로 이후 주택가 지붕 위를 오르내리면서 무려 1000명의 경찰들과 맞서 싸우다가 마지막 한 발로 자살한 의거의 주인공 김상옥 등 쟁쟁한 인물들이 의열단원이었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이름은 신화적 존재였다. 의열단에 소속된 젊은이들은 가히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그중 누구보다도 신화적인 인물은 역시 의열단의 '수괴' 김원봉이었다. <아리랑>에서 김산은 김원봉을 이렇게 소개한다.

“고전적인 유형의 테러리스트로서 냉정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다. 거의 말이 없었고 웃는 법이 없었으며,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일본 관헌은 그에 관한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 두고 그를 체포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기미년 이후 친일파와 일본 관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최대의 공적 대상이었고, 나와 같은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에게는 조국 해방의 상징적 존재였다.”

해방 후 고향 밀양에 돌아왔을 때 레드 카펫이 깔릴 정도로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그는 좌익 혐의를 받고 일본 경찰이 아닌 한국 경찰에 체포된다. 이때 그를 체포한 이가 그 이름도 유명한 친일 경찰 노덕술이었다. 김원봉은 체포 당시 화장실에 있었는데 노덕술은 옷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개 끌 듯 끌고 갔다. 수십 년 동안 객지에서 독립 투쟁을 했던 그의 속내가 어떠했을지는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의열단 동지 유석헌에 따르면 김원봉은 이후 사흘 동안을 영영 울었다고 한다.

이런 수모를 겪은 그가 월북을 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열혈 민족주의자였던 그에게 북한 역시 불편한 곳이었다. 항일투쟁을 한 것은 맞지만 김원봉에 비하면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김일성이 절대 권력을 쌓아나가는 와중에 김원봉의 이름은 그다지 유용한 것이 못되었다. 그의 월북을 설득했던 박헌영이 '미제의 간첩'이 되어 죽어간 후 그의 명도 그렇게 길지 못했다. 1958년 환갑을 맞은 해를 마지막으로 그의 자취는 사라졌고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옥중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1919년 11월 9일 열변을 토하며 의열단 탄생을 주도하던 스물 셋의 청년, 평생을 민족 독립을 위해 소진한 독립운동가의 정확한 최후를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남과 북은 합작으로 그를 역사의 미야로 만들었다.